

중국도서관학회의 어제와 오늘

김 정 애

(중국민족대학도서관 수서정리과 주임 및 부연구원)

I. 중국도서관학회 '99연차총회

인류의 찬란한 업적을 지닌 20세기가 바야흐로 저물어가고 21세기 희망의 새아침이 다가오는 이 때, 중국도서관학회 '99연차총회 및 창립 20주년기념경축대회가 1999년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아름다운 해변도시 중국 大連市에서 개최되었다. 중국문화부의 지지와 전국 각 지방 도서관학회 및 전업도서관학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99 경축대회는 국내외 도서관분야의 학자, 전문가, 회원 등 1,10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中國文化部 副部長 艾青春, 遼寧省文化廳 副廳長 劉效炎, 大連市副市長 賀旻 등이 대회에서 축사를 했으며 일본도서관협회 執行副主席 겸 秘書長 酒川玲子도 대회에서 서면축사를 했다. 중국도서관학회이사장 徐文伯이 개막식강연을 했으며 부이사장 周和平이 학회사업총화보고를 했다. '99 대회의 전체 주제는 “世紀교체 : 도서관사업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다. 분과 주제는 각각 (1) 디지털도서관과 네트워크도서관 (2) 네트워크환경에서 문헌자원 건설과 공동향유 (3) 신세기 도서관관리와 개혁 (4) 21세기를 향한 문헌정보봉사 (5) 문헌정보색인과 편목의 발전현황 (6) 지식경제와 도서관 등이다.

중국도서관학회는 전국 각 지방으로부터 위의 주제와 관련된 750여 편의 학술논문을 입수했는데 이것은 1996년 8월 북경에서 열린 제64차

IFLA대회 때 입수한 학술논문편수와 거의 가까운 수량이었다. 중국도서관학회는 '99 학술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전국도서관분야의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빙해 학술논문평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수한 750여 편의 학술논문에 대해 初選, 終選 두 차례의 評選을 거쳐 최우수논문 70편과 대회 交流논문 341편을 각각 선정했다. 그리고 선정된 우수논문 70편을 묶어 《世紀교체 : 도서관사업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라는 논문집을 편집 출판해 대회에서 발표했다. 그러므로 본 논문집은 전국도서관학회 회원들의 많은 심혈과 노고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논문집은 鴻篇巨制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국도서관학회 회원들이 도서관사업의 역사발전과 전망 및 목전 도서관학 분야에 대두된 문제점 등 다방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술한 것으로서 당대 중국도서관학 학술수준을 비교적 전면적으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99 대회는 그 규모, 참석인원수, 학술논문수량, 학술논문 주제범위, 학술논문수준 및 향후 중국도서관사업에 대한 역할이라는 면에서 전례 없는 대회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중국도서관학회가 이와 같이 큰 성과를 올리게 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II. 중국도서관학회 창립 과정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성립 이후 50년간, 중

국도서관사업은 곡절 많은 중국역사와 더불어 발전해 왔기에 그 발전이 순탄하지 못했다. 1956년, 중국도서관분야의 지성인들이 중국도서관학회를 창립할 것에 대하여 의논하고 준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실정이 중국도서관학회를 창립할 조건이 구비되지 않아 학회창립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1966년 부터 시작한 10년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중국도서관학회 창립에 대해 운운할 여지가 더욱 없었다. 1976년 “4인방”이 무너지고 문화대혁명이 정리되면서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중국은 다시 새로운 발전의 전환기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중국도서관사업도 역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78년 3월 국가문화재관리국은 주은래 총리의 “全國古籍善本書總目”을 시급히 편집해야 한다”라는 지시에 따라 남경에서 “全國古籍善本書總目編輯事業委員會”를 열었다. 그때 북경도서관이 중국도서관학회 창립을 창의하여 회의 참석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이어서 북경도서관, 중국과학원도서관, 북경대학교도서관, 상해도서관, 수도(首都)도서관, 요녕성(遼寧省)도서관, 섬서성(陝西省)도서관, 사천성(四川省)도서관, 광둥성(廣東省)도서관, 남경(南京)도서관, 북경대학교도서관학학부, 무한(武漢)대학교도서관학학부 등 12개 단위를 중국도서관학회성립준비위원회의 成員館으로 하고, 북경도서관을 주임위원관으로 추천했다.

1978년 4월부터 학회성립준비위원회는 《중국도서관학회 규정(초안)》과 《중국도서관학회창립대회 및 제1차 학술회의 계획요점(초안)》 등 관련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또 북경도서관에 위탁하여 학회간행물인 《도서관학통신》편집에도 착수하게 했다. 1978년 11월에 열린 중국

도서관학회준비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중국도서관학회 규정(초안)》과 《중국도서관학회창립대회 및 제1차 학술회의 계획요점(초안)》 등 관련 문건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1979년 1월, 중앙선전부로부터 《중국도서관학회 창립에 관한 보고》의 정식비준을 얻었으며 이어 그해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중국도서관학회창립 및 전국 제1차 학술회의가 山西省 太原에서 열렸는데 참석회원이 200여명이었고 입수한 학술논문이 174여 편이었다. 중국도서관학회의 창립은 중국도서관사업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때로부터 중국도서관은 폐쇄적이고 一般散沙적인 전통도서관에서부터 해탈되어 점차 활발히 발전하기 시작해 부단히 많은 성적을 올렸는바 아래와 같은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Ⅲ. 중국도서관학회의 발전과정

1. 학회창립이래, 중국도서관학회는 끊임 없는 탐색과 노력을 거쳐 중국도서관사업발전에 알맞는 입체적인 조직구조와 메카니즘을 형성했다. 우선 중국도서관학회는 주로 학술연구위원회, 편역출판위원회, 교류합작위원회 및 학회 秘書處로 구성되었다. 학술연구위원회는 또 도서관학기초이론전업위원회, 정보봉사전업위원회, 목록학전업위원회, 문헌자원건설전업위원회, 색인 및 편목전업위원회, 고서적정리전업위원회, 문헌수리복원 및 보호전업위원회, 도서관자동화전업위원회, 교육 및 인재양성전업위원회, 건축물 및 설비전업위원회, 소수민족도서관전업위원회, 소수민족도서관전업위원회 등 12개 전업위원회를 두었다. 편역출판위원회는 도서관학기간행물전업위원회, 도서관학도서편집출판전업위원회, 외국도서관학저작번역전업위원회, 《중

국도서관연감》편집출판전업위원회를 두었다. 중국도서관학회 산하에는 또 전국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별로 2급 도서관학회를 각각 설립했는데 대만, 티벳, 해남도를 제외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29개 성(省), 자치구, 직할시에 2급 도서관학회를 설립했으며 또 성(省) 소속 직할시와 부분적인 현(縣)에도 상응한 도서관학회를 두었다. 그 외 별도로 과학원도서관, 군대도서관 등 6개의 전업도서관학회를 설립했다. 그리하여 중국도서관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방도서관학회, 전업도서관학회와 유대적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유력한 사업망을 형성했다. 중국도서관학회는 도서관사업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자원으로 가입한 대중적인 학술단체로서 1999년 4월까지의 약 10,700여명의 회원으로 증가되었다.

2. 중국도서관학회는 창립된 그 날부터 명실공히 도서관학 학술연구 단체로서, 학술연구에서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형식의 학술연구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여 많은 성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학과의 生長點을 부단히 탐구해 나아갔다. 수선, 개혁개방정책이 실행됨에 따라 장기간 사람들의 이념을 속박하던 여러 가지 공식화, 개념화적 경향이 점차 없어지고 정치적인 결론으로서 과학적인 분석을 대체하는 좌익적 폐단도 없어졌으며 도서관학영역의 이론과 방법 등 일련의 문제들을 실사구시적인 바른 자세로 연구했다. 다음, 도서관학 학술연구의 범위가 비교적 넓어지고 심도가 깊어졌다. 즉 학술연구범위가 이론, 기술, 방법, 현대화 및 도서관사에까지 넓혀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부단히 개척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학술연구에서는 이론과 실체를 결합했고 역사와 현실을 결합했으며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구현했다.

그 다음, 도서관학 학술연구성과가 전례 없이 크다. 유관부문의 통계에 의하면 1949년부터 1979년까지의 30년간 평균 매년 출판된 도서관학저작이 5종, 발표된 도서관학 학술논문이 50편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도서관학회가 창립된 후 20년간, 평균 매년 출판된 도서관학저작이 50여 종, 발표된 도서관학 학술논문이 2,000여 편을 초과했다. 중국도서관학회 편역 출판위원회는 《중국대백과전서(도서관·정보·檔案卷)》, 《當大中國叢書(圖書館學事業卷)》, 《中國圖書館學情報學論文選叢(1949-1989)》, 《중국도서관연감 1996년》, 《도서관학연구논문집》, 《중국도서관사업20년》 등 수많은 논문집, 工具書を 편집 출판했다. 중국도서관학회와 전국지방도서관학회 및 專業圖書館學會에서 편집 출판한 도서관학정기간행물은 모두 61종이며 20년간 이에 실린 학술논문이 도합 5만여 편이 나 된다.

3. 중국도서관학회는 국가도서관사업의 중요한 한 구성부문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중국도서관학회는 창립된 그날부터 국내 학술연구와 학술교류를 중시했고 또 활발히 진행해왔다. 그리하여 전국적인 대규모적 학술세미나를 3차례 조직했고 중국도서관학회의 각 전업위원회와 지방도서관학회, 전업도서관학회의 주최로 수많은 국내 학술교류활동을 진행했다. 중국도서관학회는 또 국제도서관무대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도 아주 중시해 왔다. 중국은 IFLA를 창 의한 국가의 하나이며 일부 인원을 IFLA에 파견해 사업하게 했고 또 1981년부터 해마다 IFLA연

차회의에 중국도서관학회를 위주로 한 대표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1996년 8월 북경에서 제64차 IFLA대회를 아주 성대하게 거행했다. 중국도서관학회는 선후 30여 차례 IFLA관원들의 중국 방문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일본, 독일,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등 나라의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연구도서관 등 도서관과 상호 학술교류가 있었다. 이것은 바로 중국도서관학회의 학술연구가 국내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학술 교류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있음을 충분히 과시한다.

4. 중국도서관학회는 학회의 교량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각 기능이 점차 새롭게 변화되고 시장 경제체제확립을 다그치는 전환기에서 중국도서관학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 등 중요한 전략, 정책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다. 1998년 12월 22일 국가주석 강택민이 국가도서관을 시찰할 때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는 모두 도서관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도서관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긍정했다.

21세기를 앞둔 중국도서관학회는 《중국도서관학회 제5계 이사회 사업계획》을 세웠다. 《중국도서관학회 제5계 이사회 사업계획》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과학과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흥성하게 하는 방침에 따라 사회의 진보, 과학기술의 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해 봉사하며 도서자원건설과 정보자원개발을 진일보로 촉진시켜 사회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수립에 큰 역할을 한다. 학회의 대중성과 학술적 속성을 계속 구현시키고 학술연구에서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외 학술연구와 교류 사업을 부단히 추진시킨다. 앞으로 중국도서관학회는 모든 사업을 본 계획에 의해 진행할 것이다.

국가주석 강택민은 “창조와 혁신은 한 개 민족이 진보할 수 있는 영혼이며 국가가 흥성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궁한 원동력이다.”라고 했다. 비록 중국도서관학회가 걸어온 20년은 수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도서관사에서 순간에 불과하지만 얻은 성적은 전례 없이 찬란하다. 인류는 머지 않아 21세기 지식경제사회, 정보사회로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며 아울러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전파하는 사회의 중요한 기구인 도서관도 역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99대회를 계기로 한 중국도서관학회의 내일은 더욱 밝을 것이다.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연락처(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바뀌시면

사무국으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2)535-4868 팩스:(02)535-5616